

## 코오롱FnC, 세계 최장 비거리 골프공 '아토맥스' 판매

코오롱FnC가 31일 코오롱몰과 더카트골프에서 아토맥스를 판매한다. 코오롱의 신소재 계열사인 아토메탈테크코리아가 개발한 비정질 합금인 아토메탈을 분말 형태로 가공해 만든 골프공이다. 파랑, 노랑, 주황의 깔끔하고 세련된 패키지로 선보인다. 사용자의 클럽 헤드 스피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미드 소프트, 미디엄, 하드 등 3가지 버전으로 구성했다.



## 1 '나이트 크로우' 4월 27일 출시 2 '미르M' 글로벌 공략 3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 홍보



4월 27일 출시하는 대작 MMORPG '나이트 크로우', 동시 접속자수가 21만 명을 넘어선 '미르M'의 글로벌 버전, GDC 기초연설에서 '위믹스 플레이'를 소개하는 장현국 대표(왼쪽부터). 사진제공 | 위메이드

## 위메이드, 3박자 전략으로 경쟁력 ↑

'나이트 크로우' 사전예약 100만 '미르M' 글로벌 동점 21만 돌파 미국 GDC서 '위믹스' 비전 제시

위메이드가 '신작 출시'와 함께 '블록체인·글로벌 시장 공략 강화'로 경쟁력을 높인다. 먼저 초대형 크로스 플랫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경쟁에 뛰어든다. 주인공은 '나이트 크로우'로 정식 출시일은 4월 27일이며, 최근 사전예약 100만을 돌파했다. 위메이드는 또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를 글로벌 시장에 알리는 한편 흥행에 시동을 건 '미르M'의 글로벌 버전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 ● '나이트 크로우' 4월 27일 출시

위메이드는 매드엔진에서 개발한 신작 '나이트 크로우'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나이트 크로우는 모바일과 PC 크로스 플랫폼 MMORPG다. 이용자는

은 거대한 서사를 중심으로 압도적 규모의 전투를 경험할 수 있다. 선택과 노력에 따라 성장하는 클래스 4종과 8개 직업, 글라이더를 활용해 지상과 공중을 넘나드는 전투, 광활한 전장에서 펼쳐는 1000명 단위 대규모 전쟁 '격전지'가 특징이다. 또 언리얼엔진5로 구현한 극사실적인 중세 유럽 세계와 등급 제한 없는 이용자 간 1대1 거래 및 서버별 통합 거래소도 갖췄다. 이 게임은 지난 16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했는데, 26일 기준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 정신호를 켜다.

### ● GDC서 위믹스 플레이 알리기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의 확장도 꾀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열린 개발자 콘퍼런스 'GDC 2023'에 다이아몬드 스폰서로 참가해 관련 비전을 제시했다. 단독 부스를 꾸리고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토큰 경제와

게임파이, 마켓플레이스, 커뮤니티 기능 등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소개했다. 위믹스 플레이 생태계 확장을 위해 전 세계 게임사, 블록체인 개발사 등과의 미팅도 적극 진행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21일 기초연설에서 각기 다른 블록체인 게임과 서비스, 그리고 현실 경제가 연결되는 인터 게임 이코노미, 인터게임 플레이가 구현할 거대 생태계를 소개했다. 장 대표는 "블록체인은 재미없는 게임을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아니라 재미있는 게임을 더욱 재미있게 만드는 기술이다"며 "잘 짜인 인게임 경제를 게임 토큰과 NFT(대체불가토큰)를 통해 현실 경제와 연결시켜 재미를 배가시키는 것이 게임에서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 ● '미르M' 글로벌 동점 21만 돌파

1월 서비스를 시작한 '미르M: 뱀가드 앤 배가본드'의 글로벌 버전도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미르M 글로벌 버전은 170여 개국에서 12개 언어로 서비스 중

이다. 최근엔 동시 접속자가 21만 명을 넘어섰다. 서버 수도 빠르게 늘었다. 출시 당시 14개였던 서버는 현재 48개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미르M 글로벌 버전은 전자 '미르4' 글로벌 버전과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인터게임 이코노미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위메이드는 상승세를 잇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추가한다. 이달 초엔 핵심 전쟁 콘텐츠 '비극점령전'을 처음 열었다. 특히 이용자 권한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가장 먼저 적용했다. 이용자는 게임을 즐기면서도 거버넌스 토큰 '도그마'를 활용해 비극점령전 개척 서버를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향후 '파티 던전'과 '사복 공성전' 등에도 거버넌스 시스템을 적용한다. '위믹스 달라 페이먼트' 시스템 도입도 예고했다. 시스템이 업데이트 되면 위믹스 달라는 물론, 위믹스 플레이어의 다양한 게임 토큰을 활용해 미르M의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 2023 서울 모빌리티쇼 오늘부터 열흘간 개최



2023 서울모빌리티쇼 기아 프레스 컨퍼런스 현장에서 기아 EV9이 세계 최초로 공개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기아



2023 서울모빌리티쇼 현대차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국내사업본부장 유원하 부사장, 아시아대권역장 김선섭 부사장, 대표이사 장재훈 사장(왼쪽부터)이 쏘나타 디 엡지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 현대차

## EV9·쏘나타 디 엡지 첫 공개 2배 더 커진 서울 모빌리티쇼

8개 차종 세계 최초 공개...메타버스 참여도 OK

국내 최대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 '2023 서울 모빌리티쇼'가 30일 연례 공개 행사를 시작으로 3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흘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모빌리티쇼는 전 세계 12개국 163개 기업 및 기관이 참가한다. 행사 규모는 2021년보다 2배 이상 커졌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선진항공교통(AAM)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 명칭인 서울모터쇼보다 더 흥미롭다.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모델은 기아 EV9, 현대차 쏘나타 디 엡지, 알파모터 울프, 알파모터 울프 플러스, KG모빌리티(쌍용차) 토레스 EVX, KG모빌리티 O100, KG모빌리티 F100, KG모빌리티 KR10 등 8종이다.

기아 EV9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한 기아의 두 번째 전용 전동화 모델이다. 첨단 주행보조 기능인 고속도로 자율주행(HDP), 내비게이션 지도 정보는 물론 차량의 각종 기능을 손쉽게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무선(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차량 구매 이후에도 언제든지 사양을 추가할 수 있는 기아 커넥트 스토어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탑재되어 주목 받았다.

현대차는 8세대 쏘나타의 풀체인지급 부분변경 모델인 '쏘나타 디 엡지'를 공개하고,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과 배송 로봇 등을 시연하며 로보틱스의 미래를 제시했다. 쏘나타 디 엡지는 더 미래지향적으로 진화된 디자인과 차급을 뛰어넘는 편의·안전사양으로 국내 중형 세단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기차 스포츠업인 알파모터는 서울모빌리티쇼를 통해 4인용 픽업트럭 '울프 플러스'와 '울프'를 선보였다. 울프 플러스는 싱글 모터 후륜구동과 듀얼 모터 사륜구동 두 가지 엔진을 탑재해 1회 충전으로 402~443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출시 전부터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KG모빌리티는 전기 SUV '토레스 EVX' 및 오프로드 스포츠 모델 '토레스 TX', 디자인 콘셉트 모델 O100, F100, KR10을 공개하며 새로운 아우터에 트렌드를 제시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가 출시한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3차원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서도 즐길 수 있다. KG모빌리티, 마스터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 포르세 등 주요 완성차 브랜드와 부품·용품 업체 20여개사가 참여해 가상공간에도 부스를 꾸렸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포스코, 파주시와 임진각 보훈단지 새 단장

정전 70주년 앞두고 시설 재정비 보훈단지에 조성·추모의 문 건립



포스코는 보훈단지 입구에 포스맥(Pos MAC, 고내식강판) 제품을 활용해 단지 내로 진입할 수 있는 '추모의 문'을 건립했다. 추모의 문 설계는 포스코 A&C가 담당했다. 포스맥은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을 섞어 만든 고내식 합금도금강판으로, 아연을 주로 사용하는 일반 도금강판에 비해 내식성이 5~10배 이상 뛰어나다.

포스코스틸리온은 포스아트를 활용해 '임진각 보훈단지 종합안내도'를 제작했다. 포스아트는 철강재에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접목한 고해상도 컬러강판으로 기존 프린트강판 대비 4배 이상 높은 해상도와 정밀한 디자인은 물론 입체감을 가진 3D 질감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기존 임진각 평화누리 전체 안내도에 보훈단지를 새롭게 표시하고, 접자 음성 안내판을 새로 설치해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을 방문하는 장애인 관광객들도 보훈 단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황중현 SPC삼립 대표,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 타닛 치라와는 마크로 태국 CEO, 사와라 티타판 마크로 사업 그룹 CEO(왼쪽부터). 사진제공 | SPC삼립

## SPC삼립, CP그룹 계열사 손 잡고 태국 진출

시암 마크로와 베이커리 시장 진출 태국 기점으로 동남아로 사업 확대

SPC삼립이 최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태국 제1위 기업 CP그룹의 유통계열사 시암 마크로와 태국 베이커리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SPC삼립이 해외사업 진출을 위해 현지 기업과 체결하는 최초의 파트너십으로, 양사는 태국 현지 베이커리 제품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시암 마크로는 지난해 기준 연 매출 약 17조6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태국 전역에 상고형 마트 마크로 150여 개, 대형 할

인점 로터스 2500여 개를 운영 중이다. 태국 외에도 캄보디아, 인도, 중국, 미얀마에서 마크로를, 아시아 지역에서 유통 및 프리미엄 식품 수출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SPC삼립은 시암 마크로가 태국 및 동남아 지역에 운영 중인 유통 채널 내 인스토어 베이커리 유통 운영을 시작으로 현지 베이커리 제품 생산 및 유통 사업을 추진한다. 또 제품 개발 및 운영 프로세스, 품질관리 등 베이커리 사업 노하우를 시암 마크로에 제공한다.

회사 측은 "태국을 기점으로 동남아 시장 전반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내 베이커리 시장을 이끌어온 역량을 바탕으로, 태국 시장에 국내 베이커리의 우수성을 알릴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iy@donga.com

포스코와 파주시가 파주 임진각 보훈단지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22일 준공식을 실시했다. 이번 개선사업은 연간 200만 명이상이 방문하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내에 '추모의 문(사진)과 '보훈단지 안내도'를 건립해 호국영웅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현충시설물을 재정비해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추진돼 12월 마무리 됐다. 이번 파주 임진각 보훈단지 개선사업은 포스코와 파주시가 주관하고 제1보병사단, 경기관광공사 등이 지원했다.

파주시청에서 진행된 준공식에는 포스코 오도길 강건재마케팅실장, 파주시 김진기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을 주관한 오 실장은 "정전 70주년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임진각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에게 호국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포스코 강건재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임진각이 평화와 자유, 보훈의 메카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행사에서 양측은 감사패를 교환하는 한편, 이번 개선사업에 적용된 포스아트(Pos ART, 고해상도 컬러강판)의 다양한 내외장재 적용 사례와 협력확대 방안에 대해 협